

반드시 내과와 산부인과 의사가 협조해야 하고
유산·조산의 절박증상과 임신중독증등 有無검사

임부(妊婦)의 기생충 구제

流産・早産의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함 :

임신중에는 몸속에서 각기관의 임신성변화가 있어서 비임신시(非妊娠時)에 비하여 부작용이 많으며 더구나 임신초기에 유산, 임신중기에 조산의 위험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구충(驅虫)하기 전에 우선 세밀한 산과적(産科的) 진찰을 받아 유조산(流早産)의 절박증상, 임신중독증 기타 합병증의 유무를 검사하여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내과 의사와 산과 의사의 긴밀한 협조아래에 구충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I. 線虫類

회충, 구충(鉤虫), 동양모양선충, 편충, 요충, 휘라리아가 문제가 된다

1) 「산토닌」제제

회충, 요충, 편충을 마비상태에 빠트려서 장관(腸管)에서 구제하기 위한 것인데 설사약을 같이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임신오조(임덧), 임신중독증이 있는 임부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유산, 조산의 경험이 있었던 임부 더구나 현재 유조산의 절박증상이 있는 임부에게는 절대 금기이다.

2) 해인초(海人草)제제

회충, 편충을 구제하는 작용이 있으며 「산토닌」과 합제(各劑)로서도 사용된다.

3) 「피페라진」제제

회충, 요충에 대하여 강한 구충작용이 있으며 이약은 장관에서 흡수되

■ 羅 建 榮

태아에는 영향없으나 부득이한 경우에만 치료 임신 5~7 개월이 가장 안전, 초기는 피하도록

어도 독성이 약하며 설사약을 쓸 필요가 없는 것이 특징이므로 많이 사용된다.

4) 「레노포지」 유제제(油製劑)

구충(鉤虫), 회충에 작용하여 근강직(筋強直) 및 마비를 일으켜서 구충을 하게 되는데 신경계에 대하여 독성이 있으므로 현기증, 두통, 난청(難聽) 등이 생길 수 있다. 많은 양을 사용하였을 때는 혼수를 일으키는 수도 있으며 또 이약의 복용 1시간후 반드시 설사약을 사용하여야 하므로 임부에게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5) 「뿔노을」계 화합물(化合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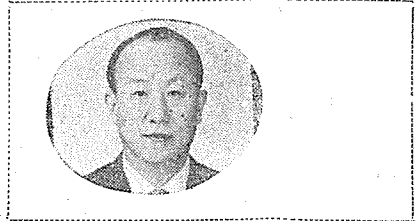
회충, 구충, 요충, 왜소조충(矮小條虫)에 대단히 유효하나 자극성이 강하여 위·십이지장궤양환자에게 사용하면 천공(穿孔)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

II. 조충류(條虫類)

광절열무조충(廣節裂頭條虫), 무구조충(無鉤條虫), 유구조충(有鉤條虫) 왜소조충 등이 있는데 구제가 대단히 곤란하여 이제까지 「멘마」제제, 「사꾸로」피(皮), 「고소」화(花), 「가마라」 등이 사용되었으나 부작용이 심하고 효과는 불충분하다. 따라서 치료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소고기, 돼지고기 등을 날로 먹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다.

III. 흡충류(吸虫類)

이 흡충은 흡반(吸盤)이 두개가 있



으므로 이구충(二口虫)이라고도 불리운다. 일본주혈흡충(日本住血吸虫), 간디스토마, 페디스토마, 요프가와흡충(橫川吸虫) 등이 아적도 있다. 흡충류의 기생부위(寄生部位)는 소화관(消化管)이 아니고 문맥(門脈), 폐, 간 등이므로 구충이 곤란하다. 이제까지 유기금속화합물인 주석산(酒石酸)「안디몬쏘디움」, 「스티보헨」 등이 사용되었으나 독성이 강하다.

이상과 같이 구충제의 대부분이 무엇인가 부작용을 가지고 있으므로 비단 직접 태아에 장해를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임신중 안심하고 사용할 것은 아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신 지속이 비교적 안정되는 임신중기(임신 제 5~7개월)에 치료할 것이며, 유산, 조산방지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임신초기인 임부에게 임신초기임을 모르고 구충제를 투약하는 일이 간혹 있었는데 이러한 일은 산과 의사와의 협력없이 시행하였던 것이므로 각별히 경고하여야 할 것이다.

<필자=서울醫大 산부인과 교수>